여수성심병원 사실상 휴업 돌입

병원장과 의료진 동의 없이 재단 독단 '휴업 공고' 말썽

대책위,지출내역 등 수사촉구…검찰에 고발장접수 임박

여수시에서 30여 년간 대표 종합병원 역할을 맡았던 서구의료재단(이사장 박상욱) 여수성심병원이 23일 사실상 휴업에 들어간 데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회장 고효주)는 23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심병원이 지난 20일 자 재단이사장 명의로 게시한 '휴업공고' 이후 23일부터 휴업안내판을 붙인 뒤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다"면서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병원이 매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휴업공고가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협의 없이 재단이 사장 독단으로 결정해 공표했다"면서 "일부 관리 직원을 제외하고 의료진 등 전 직원들에 무급 휴업을 공고하고 모든 진료를 중단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는 환자를 위한 진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성심병원이 진료를 중단하면서 만성신부전 환자(신장투석) 치료 중인 55명의 환자를 비롯해 수많은 입원 환자가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으나 이를 감독해야 할 여수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고 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욱이 대책위는 "성심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휴업 신고서를 담당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한 뒤 입원환자에게는 휴업 30일 전까지 알려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출입 명세를 비롯해 재산 관계 등을 찾아 위법이 판단 될 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1984년 설립해 68실 295병상을 보유한 여수성심종합병원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 20일 재단이사장 명의로 '휴업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는 병원의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23일부터 휴업에 들어갈 것과 일부 관리 직원을 제외하고 의료진 등 전 직원들에게는 무급 휴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은 휴업공고와 동시에 입원환자 타 병원으로 전원 및 외래 진료를 끝내면서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보훈지정병원의 역할도 사라지면서 월남참전전우회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진료도 중단된 상태다.

한 국가유공자는 "여수에는 구도심엔 성심병원과 신도심엔 제일병원이 보훈단체 지정 진료병원이지만 제일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나이든 환자가 원거리 이동에다 수시간을 기다려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고 말했다.

병원관계자는 "만선신부전환자 55명의 혈액 투석을 종료하고 사내 게시판에 휴업 예정에 대해 공지 했다"며 "향후 6개월간 휴업하고 체불임금은 7~8월 중 분할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효주 시민대책위원장은 "병원의 운영비가 한 달 평균 11억 원가량 소요되는데 평균 수입은 월 8~9억 원 정도로 적자인 것은 맞지만 경영진이 병원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재단답게 법을 지키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개인사기업이 아닌 만큼 의료재단의 책임과 사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족에게 수억 원이 지급됐다는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익목적의 비영리의료재단에 속한 성심병원의 수익과 지출이 어떠했는지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강력히 수사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휴업 신고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만큼 관련 서류를 검토 한 후 즉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여수성심병원 노동조합은 24일 오전 11시 병원 앞에서 휴업사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시원한 그늘아래 휴식 대서(大暑) 절기인 23일 오후 경남 남해군 서면 장항마을 인근 솔밭에서 한 남성이 나무그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 · 의사 구속 여부 검토

고3 내신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압수수색물 분석 후 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의사 어머니(학교 운영위원장) B(52 · 여)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유출한 시험문제로 공부한 고3 아들이 다녔던 과외학원이 불법일 가능성이 커 단속 후 위법사실이 의심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A씨와 B씨는 물론 주변인의 금융계좌와 집, 사무실, 병원,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분석중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토했으나 자수를 하고 일부 범행을 시인해 보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안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광주지역 고3 수험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또 B씨의 아들 C(18)군이 우연한 일회성이 아닌 중간 · 기말고사에 걸쳐 장기간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진 C군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행위로 시험을 치른 C군은 시험기간 중간인 지난 8일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 남구 봉선동 모 과외학원을 방문했다.

이 교습학원은 지난 2016년 벌점 60점 초과로 등록이 취소됐다. 벌점은 연수불참, 교습시간 연장 운영, 위치 무단변경, 강사채용 미등록 등이다.

이후 이 학원은 도서관으로 업종을 변경해 운영해 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재는 금품수수 여부와 추가 가담자 가능성을 놓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원장이 불법으로 과외를 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등록된 학원은 1~3차 위법행위 적발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만, 미등록 학원은 단속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수사 결과 불법 과외가 입증되면 법원이 벌금형을 부과한다.

조인호 기자

캐나다 토론토서 총기난사 2명 사망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22일(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와 젊은 여성이 숨지고 적어도 13명이 부상했다고 CTV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토론토의 동단에 있는 댄포스와 로건의 주택가 그리크타운의 식당 밖에서 밤 10시께 총격이 일어났으며 경찰과 소방대원, 구급차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14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중 젊은 여성이 끝내 사망했고 용의자도 죽었다고 밝혔다.

마크 손더스 토론토 경찰국장은 여성 1명이 숨지고 어린 소녀가 위독한 상태이 있다며 인명피해가 여러 블록에 걸쳐 생겼다고 설명했다.

현장 부근에 있던 목격자는 CTV에 약 20발의 총성이 울렸으며 계속 재장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목격자 존 툴러크는 댄포스에서 하차했을 때 20~30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목격자는 검은옷을 입은 남자가 여러 차례 총을 쏘았다고 증언했고 일부는 최대 20발을 발사한 것으로 설명했다.

총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일부는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사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경찰 대변인 마크 푸가시는 다른 부상자의 용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관 있다고 단정하기도 아직은 이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토론토에서는 차량 질주사건이 일어나 한국 교민을 포함해 10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었다.

당시 용의자 알렉 미나시안(25)은 토론토 북부 외곽지역에서 흰색 밴을 몰고 보행자들을 무차별로 들어 받았다.

중국서 가짜백신 공포 확산…당국 여론 통제

중국에서 유명 제약업체가 광견병 백신 생산 기록을 조작하고 불합격 처분을 받은 영유아용 면역 백신을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가짜 백신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2일 중국 중앙(CC) TV는 이날 리커창 총리가 백신 스캔들과 연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엄중 처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이번 일은 인간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은 것으로 모든 중국인들에게 상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국무원은 즉각 조사단을 파견해 백신 생산과 판매 등 전 과정과 산업사슬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어떤 기업, 또 어떤 사람이 관련됐더라도 관용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관리국은 지린성 창춘시 소재의 창성바이오가 인체용 광견병 백신 '베로 셀(Vero-cell)' 생산 기록을 조작하는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광견병 백신 제조와 관련한 GMP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한편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창성바이오는 중국 2위 광견병 백신 생산업체로 지난 1년 동안 생산 품질 문제가 2차례 불거진바 있다.

이어 19일 해당 회사는 전날(18일) 지린성 식약품 감독관리국이 자사에 디피티(DPT,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백신 효과 부적합 판정에 따른 부당소득 몰수와 벌금 등 344만위안에 달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직접 공개했다. 재고로 남은 180개의 DPT 백신은 당국에 압수됐지만 산둥성에 25만여개가 이미 공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 포함해 사회 전반으로 공포가 확산됐다.

영국서 3세남아 산(酸)피습 중화상

영국 우스터의 한 할인판매점에서 3살 남자 어린이가 고의로 뿌린 산(酸)의 일종으로 보이는 물질을 얼굴에 맞고 중화상을 입었다고 22일(현지시간) 경찰이 발표했다.

웨스트 머시아 경찰의 마크 트래비스 청장은 21일 일어난 이 사건에 사용된 산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39세의 남성 한 명이 신체에 중대한 폭행을 가한 특수 폭행 용의자로 체포되었고 다른 3명이 공범으로 공개수배 되어 경찰이 사진을 배포했다.

트래비스 서장은 "현재로서는 고의로 산을 뿌린 공격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주민들의 충격이 대단해서 경찰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해에도 산 공격사건이 일어나는 등 비슷한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피해자가 이번 처럼 어린 경우는 처음이다.